

2009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해설

[정답]

1.② 2.⑤ 3.③ 4.② 5.⑤ 6.① 7.⑤ 8.③ 9.④ 10.⑤
11.④ 12.③ 13.③ 14.④ 15.① 16.① 17.② 18.③ 19.① 20.②
21.② 22.⑤ 23.④ 24.③ 25.① 26.⑤ 27.⑤ 28.① 29.④ 30.⑤
31.⑤ 32.③ 33.① 34.③ 35.④ 36.⑤ 37.④ 38.⑤ 39.② 40.②
41.④ 42.① 43.① 44.③ 45.⑤ 46.② 47.② 48.② 49.④ 50.①

[1-5] 듣기

1. 이제 라디오 교양 프로그램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가 병원 가기를 두려워했던 이유 중 하나가 주사 바늘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과학자들은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 환자들이 주사 바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로는, 우선 약물 분자에다가 다른 고분자를 붙여 주사해서 약물을 몸 안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또 약물을 나노캡슐에 넣고 주사해서 약물을 서서히 방출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결국 주사 맞는 횟수를 줄여 주는 방법들이죠.

그리고 바늘이 주는 통증 자체를 없애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몸에 붙이는 패치 형태의 주사기를 개발했는데, 이 패치에 붙어 있는 바늘들은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피부에 붙여도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금속성 바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몸 안에서 녹는 재질의 미세한 바늘들이 붙어 있는 패치도 개발했는데, 이 패치를 붙이면 바늘이 피부 안에서 녹으며 그 안에 들어있던 약물을 몸 안으로 스며들게 합니다.

최근에는 아예 바늘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약물이 담긴 가늘고 긴 임플란트 관을 몸속에 삽입해서, 삼투압 원리에 따라 분자 크기의 약물을 일정하게 방출하는 기술입니다.

1. 사실적 사고(개괄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제시된 대본은 환자들의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주사 기술의 발전을 다룬 라디오 교양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과 최근 개발된 기술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며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으면서 진행자가 소개하는 기술

을 제외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풀면 된다. 진행자는 전기 신호를 사용한 주사 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②는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하지 않은 기술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약물을 몸 안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기술로서 진행자가 맨 처음에 소개한 기술이다. ③ 약물을 나노캡슐에 넣고 주사해서 약물을 서서히 방출하는 기술로서 진행자가 두 번째로 소개한 기술이다. ④ 몸 안에서 녹는 재질의 미세한 바늘이 붙어 있는 패치를 활용한 기술로서 진행자가 세 번째로 소개한 기술이다. ⑤ 바늘을 사용하지 않고 약물이 담긴 임플란트 관을 몸속에 삽입해서 삼투압 원리에 따라 약물이 방출되도록 하는 기술로서 진행자가 마지막으로 소개한 기술이다.

2. 이번에는 강연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이아름’입니다. 모교에 와서 후배들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학창 시절에 저는, 영화를 보고 돌아오면 거울 앞에 서서 한참동안 주인공의 예쁜 모습을 흉내 내곤 했지요. 그때만 해도 배우는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외모가 아름다운 배우와 훌륭한 배우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럼 훌륭한 배우에게는 어떤 자질이 있어야 할까요? 우선 정확하고 예리한 관찰력이 있어야 해요. 배우는 수많은 사람의 삶을 자신의 삶인 양 연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기해야 될 인물의 성격을 자세히 파악해야겠지요.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해야 합니다. 좋은 연기를 하기 위해선 많은 경험이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가령 의사를 연기하기 위해서 의사가 수술하거나 진찰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의사처럼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나머지는 배우가 상상해서 모델을 만들고 연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가 사실적으로 연기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감정을 갖고 표현해야 하지만, 자신에게는 최대한 냉정해야 해요.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서, 배우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면 과장된 연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자! 훌륭한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겠지요? 요약하자면 훌륭한 배우는 예리한 관찰력과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2. 비판적 사고(말하기 전략의 실현 여부 평가)

정답해설 : 연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훌륭한 배우의 자질에 대해 강연하고 있는데, 수험생들은 강연을 들으면서 문제지에 제시된 메모 내용 중에 강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찾으려 한다. 연사는 훌륭한 배우의 자질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한 후에 맨 마지막에 중요 사항을 요약하면서 말하고 있으므로, 강연 전략 중 중간 중간에 중요 사항을 요약하면서 말하겠다고 한 ⑤는 실제 강연에서 실현되지 않았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첫 부분에서 자신의 학창 시절 경험을 소개하며 화제를 제시하였고, 중간 부분에서 훌륭한 배우의 자질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끝 부분에서 중요 사항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하였다. ② 시작 부분에서 화제와 연관된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였다. ③ 훌륭한 배우의 자질에 대해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④ 첫째 항목, 셋째 항목에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였고, 둘째 항목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적절한 예를 제시하였다.

3. 이번에는 인터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 자 : 최근 농촌 체험 행사로 큰 수입을 올리고 있는 행복리 김 이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이장 : 안녕하세요?

기 자 : 이색적인 농촌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특별한 계기라도 있었습니까?

김 이장 : 아, 예. 우리 마을의 농촌 체험 행사가, 처음 시작할 때와 달리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새로운 행사를 계획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 자 :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김 이장 : 처음 농촌 체험 행사를 시작할 때는 다른 마을처럼 도시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숙박 시설을 짓고, 떡 만들거나 사과 깎기 같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는 다른 농촌 마을에서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라 굳이 깊은 산골에 있는 우리 마을까지 올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기 자 : 그렇겠군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김 이장 :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 체험 행사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더니,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더군요. 하나는 다른 마을의 체험 행사와 달리 우리 마을만의 특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농촌 체험 행사니까 눈으로만 구경하지 않고 농촌 일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행사를 마련해서 진행을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더군요.

기 자 :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3. 추론적 사고(이어질 내용의 추리)

정답해설 : 제시된 대본은 기자가 농촌 체험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농민 대표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농민 대표인 김 이장은 농촌 체험 행사의 성공 비결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다른 마을과 차별화되는 우리 마을만의 특징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농촌 일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기자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김 이장’의 답변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③번에서 ‘우리 동네 특산물 활용’은 첫째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고, ‘산양유 직접 짜 보게 하기’나 ‘녹파 잎 따서 차 만들어 보게 하기’는 둘째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첫째 조건은 충족시키지만 둘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② 둘째 조건은 충족시키지만 첫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④ 두 조건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 ⑤ 둘째 조건은 충족시키지만 첫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4~5. 다음은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자 : 아이, 속상해라!

남자 :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여자 : 어제 반상회 참석하지 않았다고 글썄, 벌금을 내라고 하네요. 제사 때문에 시골에 다녀오느라 못 간다고 미리 말도 해 냈는데, 너무 하네요.

남자 :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니까 내야지 별 수 있겠어요?

여자 : 어차피 참석하지 못하는 거였는데, 저 같은 경우엔 벌금을 물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정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리 얘기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남자 : 그래도 원칙을 정했으면 거기에 따라야죠.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그 원칙이 적용되는 사람들 모두가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내놓는 시간 문제만 해도 그래요. 아파트의 미관이나 청결 문제도 있고 해서 관리 사무소에서는 매주 금요일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로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에만 재활용품을 내놓게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일부 주민들이 자기 편한 시간에 내놓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아파트가 지저분해졌어요. 결국엔 한 번 정한 원칙이 흔들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자 : 그 문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애초에 원칙을 정할 때 사람들의

다양한 조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에 집에 없는 세대들도 꽤 있거든요. 그 때 재활용품을 내놓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은 집안에 쌓아 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격주로 배출 시간을 달리 정해서 한 주는 아침에, 한 주는 저녁에 내놓게 하면 새벽같이 일 나가느라 시간을 못 지켰던 사람들도 정해 놓은 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되고, 미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남자 : 글썄요. 그래도 이 사정, 저 사정 다 봐 주다 보면 끝이 없지 않겠어요? 원칙에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칙을 자꾸 지키지 않게 되면 그만큼 사회도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자 :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4. 사실적 사고(핵심 주장의 파악)

정답해설 : 강연 내용은 생활 속에서 겪는 원칙 적용 문제에 대한 남자와 여자의 대화이다. 여자가 특별한 사정 때문에 미리 알리고 반사회에 불참했는데 벌금을 내는 것이 속상하다며 원칙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남자는 한번 원칙을 정했다면 예외 없이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남자는 어떤 경우에라도 원칙은 정해진 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남자는 개인의 사정을 봐 주다 보면 끝이 없으니, 이 사정 저 사정 다 봐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④ 남자, 여자 모두 원칙 적용에 있어서 부작용의 최소화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⑤ 원칙을 세울 때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여자의 주장이다.

5.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에 대한 평가)

정답해설 : 이 대답에서 여자는 남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재활용품 배출 시간의 원칙에 대해, 애초에 원칙을 정할 때 사람들의 다양한 조건을 제대로 고려해 격주로 재활용품 배출 시간을 달리 정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새로 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이 제시한 사례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여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여자의 말에서 반복적인 질문을 발견할 수 없다. ③ 여자는 객관적인 정보 전달보다는 벌금을 물게 된 자신의 처지를 바탕으로 주관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③ 여자는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박하고 있다. ④ 여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다.

[6-12] 쓰기, 어휘·어법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의 내용을 토대로 유추적 사고를 하여 ‘아동 교육’에 관한 글의 내용을 적절하게 생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보기>에서는 메주를 만드는 과정을 ‘콩을 삶아 으깨어 네모나게 빻기→더운 방에서의 발효 및 숙성→햇볕에 말리기’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을 떠올릴 수 있는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메주를 숙성시키는 일련의 과정에 대응된다. ③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부터 생성할 수 있다. ④ 잘 빻은 메주를 더운 방에 짚을 깔아 숙성시킨다든지, 방 안의 메주를 꺼내어 ‘짚을 매달아 햇볕에’ 말린다든지 하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의 계기로 볼 수 있다. ⑤ ‘콩을 삶아 으깨어 네모나게 빻기’, ‘더운 방에서의 발효 및 숙성’, ‘햇볕에 말리기’ 등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메주마다 특유의 맛과 향을 내게 된다고 했다.

7. 추론적 사고(자료의 해석과 활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자료 (다)를 보면 ‘학과 안내 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직업 체험’, ‘진로 교과 수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자료 (나)를 보면 ‘학과 안내 행사’를 경험한 학생들이 ‘진로 교과 수업’이나 ‘직업 체험’을 한 학생들에 비해 많다. ‘학과 안내 행사’ 경험이 많은데도 만족도가 낮다는 내용으로 볼 때, 학과 안내 행사의 횟수를 늘리는 것은 효율적인 진로 결정을 돕는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자료 (가)를 보면 많은 수의 학생들이 적성과 흥미를 모르고 있다. 이것은 (나)에서 제시된 진로 탐색 경험이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자료 (다)를 보면 ‘진로검사’, ‘학과 안내 행사’에 관한 만족도가 낮다. ③ 직업에 대해 알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26.8%이다. ‘진로 교과 수업’ 중 직업에 대한 정보를 강화하면 진로 탐색 경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④ ‘직업 체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는데, 그것을 경험한 학생들의 수가 9%로 적다.

8. 추론적 사고(구상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구상해 쓰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결단과 도전을 통해 얻은 새로운 삶’이다. 그런데 ③에서는 B와 C가 A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힘주어 말하며 격려한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자유의 소중함’이 주제의식으로 부각된다. 이야기의 주제에 비추어 볼 때 ③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의 고뇌는 ‘상황과 결부된 내적 갈등’이라는 <갈등 구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 ② ‘절벽에 몸을 던져 새 부리를 얻었다’는 것은 <착상>

의 내용과 연관되며 ‘결단과 도전을 통해 얻은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와도 통한다. ④ <기본 열개>의 ‘도전과 시련’과 관련 있다. ⑤ 도전과 시련을 마치고 새 부리를 얻는다는 것은 이야기의 주제를 잘 나타낸다.

9. 비판적 사고(고쳐 쓰기 계획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의 주체는 ‘어미 오리’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의 주체가 ‘어린 새’로 되어 있다. 여기서 ㉠에 ‘어미’라는 주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에 ‘어미’를 추가하면 ‘어미가 어린 새를 자신의 새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다.’가 된다. 그런데 이 상태로는 앞문장과 논리적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다. ‘백조가 다른 ~ 인정받은 것이다.’의 이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표현해야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가 자연스러워진다. ㉡에는 ㉢가 들어가야 한다. ㉡ 뒤의 ‘내가 차별받지 않기를 바란다’를 고려하면 ㉡에는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차별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앞의 문장과 역접 관계이므로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가 자연스러우려면 ‘그러나’도 필요하다. [답] ④

10. 추론적 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정답해설 : <보기>에서 제시된 조건은 세 가지이다.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⑤이다. ⑤의 ‘하얗게 지새운 밤’과 ‘노랗게 흔들리는 아침’은 감각어를 활용한 대구적 표현이다. 그리고 ‘당신이 지난밤 모니터 속의 적과 대결하는 동안 / 당신은 적에게 생기를 빼앗겼습니다.’는 구체적 상황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는 것에 해당되며, ‘게임 중독이 건강에 미치는 폐해’도 나타내고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게임 중독이 건강에 미치는 폐해도 잘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② 감각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다. ③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구체적 상황으로 게임 중독이 건강에 미치는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11. 어휘·어법 (조사의 쓰임 이해)

정답해설 : 조사 ‘는’은 ‘대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에서 ‘할아버지에게’에 ‘는’을 써야 하는 이유는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말썹꾸러기 돼지 한 마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할아버지’는 ‘말썹꾸러기 돼지 한 마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돼지를 싫어한다’는 내용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는’을 써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주격 조사 ‘가’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② 앞 문장에서 할아버지를 소개했으므로 ‘는’을 써야 자연스럽다. ‘가’를 사용하면 앞 문장과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게 된다. ③ 할아버지가 돼지를 싫어한다는 사실은 할아버지가 개와 고양이를 귀여워한다는 사실과 대조된다. ⑤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애교가 많지도 않다는 점에서 ‘말썹꾸러기 돼지’는 다른 동

물들과 대조된다.

12. 어휘·어법 (어휘의 적절한 분류)

정답해설 : ‘수군거리다’는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자꾸 가만가만 이야기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 ‘남’은 제삼자를 가리키며, ‘이야기하다’는 대화 상대방에게 말을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수군거리다’를 대화 상대가 불필요한 B에 배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구시렁거리다’는 ‘못마땅하여 군소리를 듣기 싫도록 자꾸 하다.’는 의미인데 혼자서 중얼대는 말이므로 적절한 분류이다. ② ‘투덜거리다’는 ‘남이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자꾸 불평을 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대화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불만을 표현하는 말이므로 적절한 분류이다. ④ ‘웅얼거리다’는 ‘나직한 소리로 푹푹하지 아니하게 혼자 입속말을 자꾸 해 대다.’는 뜻이다. 대화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하는 말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므로 B에 분류되어야 한다. ⑤ ‘속닥거리다’는 청자 외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은밀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자가 필요하므로 C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하다.

[13-15] 과학, ‘신기루의 형성과 종류’

지문해설 : 이 글은 신기루가 일어나는 과학적 원인과 그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기루는 원래 있던 대상이 공기층이 온도 차 때문에 다른 곳에 보이게 되는 현상으로, 공기의 밀도 차에 따라 빛이 공기를 통과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다. 사막 지역처럼 지표면이 뜨거운 곳에서는 지표면 공기가 그 위층의 공기에 비해 쉽게 뜨거워지므로 두 공기층 사이에는 밀도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신기루가 생기는 데 이를 ‘아래 신기루’라고 한다. 추운 극지방에서는 지표면의 공기가 그 상공의 공기보다 훨씬 차기 때문에 이런 밀도 차이에 의해 빛은 밀도가 큰 지표면 쪽으로 굴절되어 산봉우리가 실제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를 ‘위 신기루’라고 한다. 이 외에도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가열된 아스팔트 도로 위의 물웅덩이처럼 보이는 신기루, 그리고 따뜻한 봄날 지표면 부근에서 발생하는 아지랑이 등도 모두 공기의 밀도 차이에 의해 빛이 굴절 되면서 일어나는 신기루의 일종이다.

[주제] 신기루가 발생하는 원리와 그 유형들

13.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두 공기층 사이에 밀도 차이가 생길 때, 이렇게 밀도가 다른 경계면을 통과하는 공기는 굴절하게 된다. 따라서 신기루는 지표면 공기와 그 위 공기 간의 온도 차이가 큰 사막이나 극지방에서 쉽게 관찰될 수 있다. 신기루는 그 자리에 없던 대상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아

나라 원래의 대상이 공기층의 온도 차 때문에 다른 곳에 보이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므로 신기루가 나타나려면 그 부근에 대상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① 신기루는 공기층의 온도 차로 인해 생겨나므로 사막이나 극지방에서 잘 일어나지만, 그 외의 여러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② 빛은 밀도 차이가 나야 굴절하게 된다. ④ 신기루는 공기층의 밀도 차이가 있어야만 생길 수 있다. ⑤ 신기루는 공기층의 온도 차이에 의해 빛이 굴절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물의 있고 없고는 신기루 현상이 나타나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

14.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의 그림은 지문에 드러난 신기루가 일어나는 원리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기루의 개념, 신기루가 일어나게 되는 조건, 신기루의 여러 형태 등을 두루 고려하면서 선택지의 내용이 타당한지 하나씩 세밀하게 검토해본다. 태양이 비치는 지표면 공기는 쉽게 뜨거워지므로 ⑥의 공기층은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작아진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① 사막 지대에 있는 나무는 거꾸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② 극지방의 지표면은 상공의 공기보다 차고, 찬 공기층의 밀도는 상공의 공기보다 크다. 이러한 밀도 차이에 의해 빛은 밀도가 큰 지표면 쪽으로 굴절된다. 이 때문에 극지방의 산봉우리는 실제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③ 공기층의 온도가 일정하면 밀도가 일정하므로 신기루가 일어나지 않는다. ⑤ 지표면 공기층이 상공의 공기층보다 온도가 높으면 빛은 굴절하여 위로 올라간다.

15. 추론적 사고(대상의 비교·대조)

정답해설 : ‘위 신기루’는 추운 지역에서 일어나는 신기루이다. 이는 굴절된 빛이 밀도가 큰 지표면 쪽으로 굴절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신기루이다. ‘아지랑이’ 또한 신기루이다. 이는 지표면과 그 위 공기 간의 온도 차이가 생겨서 하늘에서 온 빛이 굴절되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이때 극지방은 위 아래 층의 온도 차이가 비교적 오래 지속되는 곳이고 아지랑이는 봄철에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졌을 때 생기는 현상이므로, 이를 통해 ①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각각의 신기루가 어떤 날 더 효과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③ 빛은 밀도가 큰 지표면 쪽으로 굴절한다. ④ ‘위 신기루’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사라진다. ⑤ ‘위 신기루’가 실제보다 더 위로 보이는 것은 맞지만, 아지랑이가 더 아래로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16-19] 인문, ‘현대 사회에서의 연민의 의미와 가치’

지문해설 : 글쓴이는 매체의 발달로 사람들의 고통을 과거보다 더 많이 접하면서도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연민의 정서를 갖지 않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연민이 생길 수 있는 두 조건을 제시하며 현대 사회에서 연민의 감정이 더욱 무뎠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글쓴이는 현대 사회에서 연민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글쓴이는 여러 정황을 근거로 삼아 현대 사회에서 연민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쓴이는 여러 사람과 함께 고통의 원인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진정한 연민이라는 견해도 피력하고 있다.

[주제]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현대 사회에서의 연민과 연대의 필요성

16.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3문단에서 글쓴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연민이 생길 수 있으며 연민의 가치 또한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 이유로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글쓴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연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인데, 이 말은 ‘사회가 위험해지면 연민이 많아진다.’는 ①과는 의미가 다르다. ①은 ‘사회가 위험해지는 것’을 ‘연민이 많아지는 것’의 필수 요건이란 의미를 나타낸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마지막 문단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③ 첫째 문단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④ 간접 경험을 통해서 연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도 연민을 느낄 수 있음을 나타낸다. ⑤ 연민에 대한 정의가 시대와 문화, 지역에 따라 가지각색이라는 둘째 문단의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다.

17. 추론적 사고(뒷받침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글쓴이는 ‘현대 사회의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사람들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것’,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이전에 몰랐던 사람들의 불행까지 의식할 수 있게 된 것’ 등을 근거로 연민이 그 어느 때보다 현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①은 고통을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진 정황을 근거로 도출된 글쓴이의 생각이다. ②는 ‘고통을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진 정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내용과 연결된다. ③ 고통을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④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관계가 복잡해진 것과 관련이 있다. ⑤ 직장을 잃는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사람이다.

18.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둘째 문단을 보면 현대인은 타인의 고통을 대부분 그 사람의 잘못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로 보며 자신은 그러한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

을 갖고 있다. <보기>의 경수 또한 그러한 경향을 보여 준다. 경수는 할머니의 불행이 할머니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여기며, 자신은 할머니와 같은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경수는 할머니의 불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할머니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할머니의 불행을 할머니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② 방송을 통해 할머니의 불행을 접하고 연민의 정서를 느끼고 있다. ④ 경수는 개인적으로 전화 모금에 참여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경수의 일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것은 경수가 연대로 나아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⑤ 경수는 할머니와 같은 불행을 자신은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할머니에 대한 연민을 느꼈다.

19. 어휘·어법(어휘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너나들이하다’는 ‘서로 너니 나니 하고 부르며 허물없이 말을 건네는 사이’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밀성은 줄었지만’이란 내용을 나타내는 말로 적절하지 않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밀감이 없이 예사로운 모양’을 나타낸다. ③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 지내다.’를 뜻하고 있다. ④ ‘자주 만나지 못하여 낮이 좀 설다.’는 의미를 뜻하는 말이다. ⑤ ‘낮이 설거나 익숙하지 아니하여 자꾸 어색하다.’를 뜻한다.

[20-23] 현대시

(가) 백석, ‘여승’

작품해설 : 이 시는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식민지 시대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스런 삶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가 절에서 여승을 만나고 이 여인의 기구한 삶이 과거 회상의 형식으로 제시되며, 왜 여승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남편을 찾아 헤매다, 딸까지 죽게 되자 여인은 여승의 길을 택한 것이다. 가족이 해체되는 여인의 모습에는 식민지 시대 우리 민족의 고단했던 삶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주제] 한 여인의 비극적 삶에서 느끼는 서러움

(나) 나희덕, ‘못 위의 잠’

작품해설 : 화자는 못 위에서 꾸벅이며 잠을 자고 있는 제비의 모습을 보며 유년 시절 고단한 삶을 살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다. 겉으로 범주가 다른 두 대상을 그려내고 있지만, 제비는 바로 화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현재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작은 제비집, 갓 태어난 새끼들, 날개로 등지를 덮은 어미, 못 위에서 잠을 자는 제비는 각각 화자의 유년 시절의 좁은 골목길, 나를 포함한 아이 셋, 피곤에 지친 화자의 어머니, 한 걸음 늦게 따라오는 아버지의 모습에 대응되고 있다.

[주제] 유년 시절의 아버지에 대한 회상과 연민

(다) 이수익, '결빙의 아버지'

작품해설 : 이 시는 어머니에게 말하듯이 대화체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화자는 어린 시절 자신을 감싸주었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기에 그 사랑이 더욱 절실히 그리울 뿐이다. 이러한 화자에게 여린 물살을 품고 흐르는 한강물은 바로 어린 시절 화자가 느꼈던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비록 차가운 얼음으로 형상화되었지만, 얼어붙은 잔등으로 흑한을 막고 있는 얼음은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주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20.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시적 화자인 '나'는 여승을 만나면서 여승의 과거를 떠올린다. 그리고 이 여인의 과거의 삶이 펼쳐지며 왜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가 보여지는데 이것이 시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나)에서 화자는 못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제비의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다. 못 위에 앉아 불안하게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의 모습이 어린 시절 실업자로 힘든 삶을 살았던 아버지와 유사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화자는 당시 아버지의 심정을 어른이 되어서야 이해하고 있다. (다)에서 화자는 예닐곱 살 적 겨울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던 체험을 떠올리고 있다. 그리고 요즈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절실히 그리워하고 있다. 그러던 중 한강교를 건너면서, 흐르는 여린 물살을 품고 흘러가는 물을 보며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고 있다. 결국 세 작품 모두 시간의 변화가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반어적 표현으로 주제를 부각시킨 작품은 없다. ③ (가)에서 한 여인이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고난의 현실이 나온다. 하지만 화자는 이러한 현실을 포용하기보다는 고발하고 있다. (나)에서도 아버지가 실업하고 어머니가 돈을 벌어야 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아버지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다)는 어머님께 말하듯이 대화체를 사용하고 있다. ⑤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낸 작품은 없다.

21. 추론적 사고(작품의 비교 감상)

정답해설 : (가)는 화자가 여승을 만난 이후 이 여인이 여승이 되기까지의 삶의 모습을 시간 순(2,3,4연)으로 보여주고 있다. 남편을 찾으러 금점판을 헤매던 여인이 딸까지 잃고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눈물을 자극할 만하다. 하지만 화자는 이러한 장면을 담담히 서술하고만 있을 뿐이다. 반면에 (나)에서 화자는 못 위에서 꾸벅거리는 제비를 바라보며 어린 시절 실업자였던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다. 실업자였던 아버지를 대신해서 일을 해야 했던 어머니, 그리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화자는 이제야 그때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여승이 (나)에서는 제비가 시상을 유발하고 있다. ② ③ (나)에서는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제비의 모습을 통해 유년 시절 아버지에 대한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을까요’, ‘-던가요’의 어조가 친근감을 주고 있다. ⑤ (가)의 넷날같이 늙은 여승, 불경처럼 서러워진 화자, 섭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등에서, (나)의 못 위에 앉아 꾸벅거리고 있는 제비로 표현된 아버지, 반쪽 난 달빛같이 창백한 어머니 등에서 비유적으로 표현된 인물을 엿볼 수 있다.

22.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비좁은 골목은 화자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궁핍한 삶이 영위되는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여인은 금점관에서 옥수수를 팔며 지아비를 찾고 있다. ② 여인은 딸이 죽어버리자 여승이 되기로 생각한 것이다. ③ 어린 시절 실업자였던 아버지는 버스 정류장에서 세 아이를 데리고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부인을 기다리며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생각했을 것이다. 화자는 이제서야 그때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④ 그럴듯한 집 한 채에는 아버지의 바람이 담겨 있다.

23. 비판적 사고(작품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화자는 어린 시절 추위로부터 자신을 따뜻하게 해 주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사랑을 느끼고 싶어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더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운 것이다. 그런데 한강교를 지나면서 여린 물살을 품 안에 안고 흘러가는 한강의 물길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고 있다. ‘얼어붙은 잔등’은 혹한이라는 시련을 막아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얼음’은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했던 아버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답] ④

[24-27] 기술, ‘국제 표준 도량형’

지문해설 : 이 글은 국제 표준 도량형, 즉 미터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791년에는 자오선을 기준으로 미터를 정하고자 하였으나, 자오선의 길이를 측정하기가 어려웠으며, 1889년 제1차 국제도량형총회에서는 ‘백금-이리듐 합금 막대’를 미터의 기준이 되는 원기로 정하고자 하였으나, 이 원기는 상황에 따라 변형이 생길 수 있었다. 1960년 제11차 총회에서는 크립톤 원자의 파장을 길이의 표준으로 정하였으나, 파장의 빛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1983년 제17차 총회에서는 고정된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길이의 표준을 정하였다. 이는 빛의 속력을 측정하지 않고 정확한 값으로 고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 국제 표준 도량형을 만들기 위한 노력

24. 사실적 사고(정보의 세부적 확인)

정답해설 : 넷째 문단에 따르면, 원자에서 ‘방출되는 복사선들은 각각 불변하는 고유의 파장을 갖고 있’어서, 국제도량형총회에서 크립톤의 파장을 ‘길이의 표준으로 정’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③은 원자에서 방출되는 복사선의 파장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 이것이 표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셋째 문단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본문에서는 다양한 도량형의 정의가 제시되고 있다. ‘자오선’에 따른 정의, ‘합금 막대’에 따른 정의, ‘크립톤 파장’에 따른 정의, ‘빛의 속력’에 따른 정의가 그것인데, 이러한 내용에 ①의 ‘정의는~ 변경되면 안 된다’가 부합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본문 둘째 문단에서 ‘자오선의 길이는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라고 하였으므로, ②의 ‘자오선의 길이는 언제든 측정이 가능하므로’는 본문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본문에 따르면, 1960년의 길이 표준은 원자 내부에서 방출되는 복사선을 이용한 것이고, 1983년의 길이 표준은 빛의 속력을 이용한 것이다. 각각 ‘복사선의 고유성’, ‘빛의 속도가 지닌 일정성’을 활용한 것이므로, 빛의 동일한 속성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셋째 문단에 따르면, 백금-이리듐 합금이 인공물이기는 하나 1889년 새로운 국제 표준으로 정해진 바 있다.

25.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은 ‘도량형의 통일된 표준’이 없어서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도량형의 사전적 의미는 ‘길이, 부피, 무게 따위의 단위를 측정하는(=재는) 법’인데, 이에 따라 ‘측정의 표준이 없어서 혼란이 초래되는 사례’를 찾으려 한다. ㉠에서 충전기의 모델이 다른 것은 충전기의 크기나 무게 등이 올바른 규격으로 제작되었다라도 호환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측정의 표준과 직결되는 문제라 보기 어렵다. [답] ㉠

[오답피하기] ㉡ 체온 측정의 표준이 되는 체온계가 통일되지 않은 사례 ㉢ 전압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혼란이 생긴 사례 ㉣ 생산된 부품들의 치수가 통일되지 않아 혼란이 생긴 사례 ㉤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가 통일되지 않아 혼란이 생긴 사례

26. 추론적 사고(세부적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A]의 미터 규정은 빛의 속력 값을 고정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빛의 속력은 측정한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고정한 것인데, 이는 측정에 의한 값에 불가피하게 오차가 생기기 때문이다. [A]는 이렇듯 빛의 속력 값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고정한 것이라는 점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는 빛의 속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A]를 잘못 이해한 내용이다. [답] ㉤

[오답피하기] ② ‘측정값’은 불확정적이라는 내용이므로 [A]를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니다. ③ 1/3초에 1m를 갈 경우, 1초에 3m를 진행한다는 수식에서 알 수 있듯이, [A]에서 빛의 진행이 1/299 792 458초에 1m를 진행한다고 하였으므로, 빛은 1초에 299 792 458m를 진행한다는 계산을 추론할 수 있다. ④ [A]에 따르면, ‘속력’, ‘이동 거리’와 ‘시간’ 이 셋의 관계 중에서 과거에는 이동 거리와 시간을 미리 결정하였다. 그러나 새 도량형의 정의에서는 ‘속력’을 고정하고 ‘길이’를 고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길이’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속력’과 함께 ‘시간’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7. 어휘·어법의 이해(형태소 간의 의미 관계)

정답해설 : ㉠의 ‘눈금자’는 ‘눈금’이라는 [형체]가 ‘자’라는 [대상]에 [새겨]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 ‘모눈종이’는 ‘모눈’이라는 [형체]가 ‘종이’라는 [대상]에 [새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체’는 ‘물건의 생김새나 그 바탕이 되는 몸체’를 뜻한다. [답] ㉡

[오답피하기] ㉠ ‘꽃무늬’에서 ‘꽃’과 ‘무늬’는 둘 다 [형체]를 말한다. ㉡ ‘삼각자’에서 ‘삼각’이라는 [형태]는 ‘자’가 취하는 형태 그 자체이다. ‘형태’는 ‘사물의 생김새나 모양’을 뜻한다. ㉢ ‘저울눈’에서 ‘저울’에 ‘눈’이 새겨지므로, ‘저울눈’은 [형체]+[대상]의 구조가 아니라, [대상]+[형체]의 구조를 갖고 있다. ㉣ ‘그림물감’에서 ‘그림’은 ‘물감’이라는 [대상]의 용도이다.

[28-31] 현대소설, 현길언, ‘신열(身熱)’

작품해설 : 한 신문사 기자의 눈을 빌려 역사의 왜곡 행위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음을 꼬집는 동시에 현재에도 우리가 어떤 진실을 가려내지 못하고 오히려 허위와 조작을 일삼고 있음을 비판한 소설이다. 이 작품 속의 ‘김만호 씨’는 일제 시대 친일 행위를 했지만 해방 이후에 출세한 인물로서 현재 ‘선구적인 시민상’ 수상을 앞두고 있다. 반면 ‘강 목사’는 일제 때 한글강습소를 운영하다가 김만호 씨에게 핍박을 받은 인물로 김만호 씨와 상반된 삶의 관점을 지녔던 인물이다. 지문에 제시된 대화로 미루어 볼 때 ‘재종숙’은 ‘강 목사’의 입장에서 서 있는 인물이고, ‘교장 어른’은 ‘김만호 씨’의 입장에서 서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작품의 관찰자이자 작품 속에서 기자 역할을 하는 ‘나’는 ‘선구적인 시민상’ 수상 논란의 당사자인 김만호 씨의 과거 행적에 대해 취재하면서 진실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지만 현실이 용납하지 않는 관계로 결국 좌절하고 만다.

[주제] 진실을 왜곡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

28.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제시된 지문에서는 ‘나’와 ‘재종숙’의 대화, ‘나’와 ‘교장 어른’의 대화를

통해 주로 ‘김만호 씨’와 ‘강 목사’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들이 일제 강점기 때 및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즉 대화를 통해 초점이 되는 두 인물의 성격과 그들의 상반된 삶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주제를 암시할 만한 상징적 소재를 찾을 수 없다. ③ 사물에 대한 섬세한 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비유적인 언어를 부분적으로 구사하기는 했지만, 이를 통해 미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내적 독백을 연속적으로 서술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29. 추론적 사고(인물의 태도 및 입장 추론)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재종숙’은 ‘강 목사’의 입장에 서 있어서 ‘김만호 씨’의 ‘선구적인 시민상’ 수상을 반대하고 있는 데 비해, ‘교장 어른’은 ‘김만호 씨’를 두둔하며 ‘재종숙’의 처사를 못마땅해 한다. ‘나’는 이 두 사람을 모두 만나 취재를 하면서 두 사람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기에, ④처럼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렵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김만호 씨’가 일제 시대에 면장으로 일하면서 친일 행위를 했으면서도 해방 이후에도 요란하게 행세를 했다고 한 데서, 그가 현실의 변화를 재빨리 수용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② ‘김만호’는 일제 시대에 관리로 일했고, ‘강 목사’는 한글강습소를 운영하다가 강제 폐쇄를 당했다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 ③ ‘교장 어른’이 ‘김만호’를 두둔하는 말을 하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 ⑤ ‘재종숙’이 ‘김만호’의 ‘선구적 시민상’ 수상을 반대하면서 나라를 팔아먹고 권력의 종노릇 한 사람이 그런 상을 받으면 모두들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언성을 높여 말한 데서 짐작할 수 있다.

30. 추론적 사고(구절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 추론)

정답해설 : ㉔을 예상 밖의 결과에 대해 실망하는 심리로 보기는 어렵다. 이 글의 중간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재종숙’과 헤어지고 나서 ‘교장 어른’을 만나러 오면서 ‘그에게서는 재종숙과는 정반대의 말을 들을 것이 뻔하다’고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종숙’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김만호’를 두둔하는 ‘교장 어른’에게서 ‘김만호’의 새로운 면모를 찾지 못한 것은, 서술자가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이며 특별히 실망할 만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㉑에서 ‘재종숙’이 그때 일을 어제 일같이 말한 것은 그가 과거의 일을 아직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임을 전후 문맥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㉒에서 ‘재종숙’의 말투가 점점 과격해진 것은 그가 ‘김만호’의 수상 소식 때문에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흥분하고 있기 때문임을 전후 문맥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㉓의 앞뒤 문맥에서 서술자가 관련된 사안을 예민한 문제라고 느껴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㉔의 앞뒤 문맥에서 ‘교장 어른’이 일제 치하의 상황 논리

를 근거로 ‘김만호’의 친일 행위를 두둔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1. 추론적 사고(도표를 활용한 구성 방식의 추리)

정답해설 : 이 글에서 서술자인 ‘나’(인물A)는 이야기Ⅱ 속의 인물인 ‘강 목사’(인물D)와 ‘김만호’(인물 E)의 삶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재종숙’(인물B)과 ‘교장 어른’(인물C)을 차례로 만나서 그들에게 ‘강 목사’(인물D)와 ‘김만호’(인물E)의 삶에 대해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야기Ⅱ를 이끌어내고 있다. 작품의 진행 과정으로 볼 때 ‘김만호’의 ‘선구적 시민상’ 수상의 타당성 여부가 초점이 되고 있는데, ‘재종숙’은 ‘김만호’의 수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김만호’를 두둔하는 ‘교장 어른’은 그런 ‘재종숙’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핵심적 의미는 ‘선구적 시민상’을 수상하게 된 ‘김만호’(인물 E)의 실상 규명이며, 동시에 그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강 목사’(인물D)의 실상 규명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야기Ⅰ과 이야기Ⅱ의 공간적 배경을 다르게 설정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이야기Ⅰ(현재)과 이야기Ⅱ(과거)의 시간적 배경은 분명히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③ 이 글의 갈등 관계는 단순하지 않으며, 갈등 관계를 통해 단일화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글의 독특한 구성 방식 때문에 이야기Ⅱ의 비중이 약화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독특한 구성 방식 때문에 이야기Ⅱ의 비중이 더 커진다고 보아야 한다.

[32-35] 예술, ‘난간의 건축 미학’

지문해설 : 이 글은 우리의 전통 건축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난간(欄干)의 건축 미학적 특징과 의의에 대해 밝히고 있다. 우리의 전통 건축물은 대부분 목조 양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난간 역시 자연스럽게 목조로 설치되었다. 나무는 본래의 특성을 잘 살려 주변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건축 소재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난간 공간에는 궁창을 만들어 잇기도 했는데, 이는 장식적 목적 이외에 건물 내부 공간을 개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바깥 세계를 안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주제] 난간 건축의 미학적 특징과 의의

32. 사실적 사고(핵심 개념의 이해)

정답해설 : 이 글은 난간의 건축 재료인 목조의 자연 친화적 특징과 난간이라는 공간이 갖는 미학적 특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목조는 나무 본래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다른 건축 재료와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건축 재료로, 선인들의 자연 친화적인 미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난간에 궁창을 만들어 답답한 내부 공간을 확장하고 외부 공간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공간 미학을 발휘하고 있다. [답] ③

33. 추론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추론)

정답해설 : 우리의 전통 건축물 대부분은 목조 양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석조 난간 보다는 목조 난간이 더 널리 설치되었다. 목조 난간은 일반 민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수수한 난간에서부터 멋을 살린 계자(鷄子) 난간으로 발전해 갔는데, 계자 난간은 궁관에 궁창을 만들어 잇기도 하고, 때로는 궁관 대신에 다양한 모양의 살창을 끼워 멋을 살렸다. 따라서 계자 난간의 궁창에 살창을 낸다고 한 ①의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민간에서 주로 보이는 보통의 난간은 특별한 장식 없이 널빤지만으로 잇는 소박한 형태였다. 따라서 민간의 난간에서는 다양한 모양을 한 궁창을 찾아볼 수 없다. ③ 마지막 문단에 보면, 수복강녕(壽福康寧)을 상징하는 다양한 모양의 궁창이 만들어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3문단에 보면, 난간에 동자를 짜서 마루와 궁관에 끼워 난간을 튼튼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장식미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난간을 지을 때 하엽과 돌란대를 고정시키기 위해 못을 박을 때에도 국화 모양의 나무못을 사용했다.

34. 추론적 사고(핵심 내용의 이해)

정답해설 : 5문단에 보면, 난간에 궁창을 만들어 잇는 것은 건물 내부 공간을 시원스럽게 개방함으로써 자연스레 바깥 세계를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내부와 외부의 경계인 난간이, 동시에 안과 밖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난간의 다양한 변형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 ⑤ 목조로 만들어진 난간이 주위 환경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고 했지, 환경의 물리적 변형 없이 설계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35. 어휘·어법의 이해(적절한 단어로 바꿔 쓰기)

정답해설 : ④는 화사한 멋과 야무진 짜임새를 ‘두루 빼놓지 않고’, 모두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의 의미를 갖는 ‘한결같이’와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④

[36-39] 고전소설, 작자 미상, ‘조웅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대표적인 영웅 소설의 하나로, 전반부는 주인공이 고행을 겪고 여인과 인연을 맺는다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영웅적인 활동으로 조정과 황제를 구한다는 내용이다. 다른 소설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영웅의 활동을 도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작품은 한시(漢詩)를 빈번하게 삽입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인물의 의중을 드러내고 있다. 제시된 장면은 월경 대사의 보호 아래 있던 조옹이 어머니를 떠나 철관 대사를 만나는 대목이다.

[주제] 조옹이 어머니를 떠나 철관 대사를 찾아감.

36. 추론적 사고(등장인물의 특성)

정답해설 : 조옹은 어머니께 ‘세상을 구경하고 황성 소식도 듣고자’ 한다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다음, 다시 월경 대사에게 ‘모친의 마음을 돌려 저의 뜻을 펴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어머니가 꾸중으로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뜻을 관철시키는 태도로 보았을 때, 조옹이 어머니의 입장보다 자신의 포부를 앞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옹의 거동을 본 철관 대사는 옹이 글쓰고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급히 내려와’ 글을 ‘보기를 다하고 크게 놀라’ 옹을 다시 불러 오게 하고 있다. 철관 대사가 조옹의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왕 부인이 월경 대사에게 한 말에 따르면, 부인은 옹의 입신양명에 대한 희망보다는 옹에 대한 사랑(‘어찌~ 잠시라도 잇을 수 있으며’)과 염려(‘어지러운 세상에 나가 어찌될 줄 알리오.’)가 앞서고 있다. ③ 동자는 조옹에게 ‘정성이 부족’하여 철관 도사를 만나지 못한 것이며, 대사의 ‘종적’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동자는 조옹이 도사를 만날 수 없는 상황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④ 월경 대사는 조옹이 어떠한 곤란에 처하더라도 ‘조금도 걱정할 바가 없을’ 것이라 하여 조옹의 장래를 낙관하고 있다.

37. 추론적 사고(소재의 서사적 기능)

정답해설 : [A]는 철관 도사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조옹의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한 것이므로 주인공의 심리적 정황이 제시되어 있다(ㄴ)고 할 수 있다. ‘십 년을 지내 온 나그네’인 자신이 ‘정성이 모자람’으로 인해 못 만나고 간다는 것이다. 한편 철관 도사가 조옹을 급하게 부르게 된 것은 그 글을 읽고 나서이므로, 그 글은 주인공의 고민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다(ㄷ)고 볼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ㄱ : 조옹은 미래의 사건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ㄷ. 조옹의 위기를 암시할 수 있는 대목은 찾을 수 없다.

38. 비판적 사고(구성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소대성과 조옹이 영웅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두 가지에서 차이를 보인다. 소대성은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구했고, 조옹은 ‘간신이 일으킨 반란을 평정해서’ 나라를 구했다. 소대성이 ‘선천적으로 무예와 도술을 지니고 있었’던 반면, 조옹은 ‘스승을 찾아’ ‘긴 수련의 과정’을 겪었다. 따라서 ⑤에서 이 작품이 ‘선천적으로 힘이 주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소대성전’보다 ‘주人公의 현실적이고 강인한 의지’를 부각시킨다고 한 진술을 타당한 진술이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등장인물의 수’의 증감은 ‘조옹전’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사건을

다양한 측면이나 시점에서 작품이 서술되었는지의 여부 또한 확인하기 어렵다. ②, ③ 부각하고자 하는 대상이 ‘대사나 도사의 신비한 능력’이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④ 시련이 보다 ‘단계적으로 설정’되는데, ‘사건의 전개 속도를 빠르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39. 어휘어법(사자성어를 통한 독자의 반응)

정답해설 : 월경대사의 말은 조웅의 운명을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은 그 말과 같지 않게 조웅에게 번고라도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우려한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은 ②의 ‘노심초사(勞心焦思)’로 이 말은 ‘근심과 걱정으로 속이 탐’을 의미한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선견지명(先見之明) : 앞일을 미리 내다보는 식견 ③ 식자우환(識字憂患) : 아는 것이 병이다. ④ 시시비비(是是非非) : 옳고 그름을 따짐. ⑤ 적반하장(賊反荷杖) :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 즉, 잘못을 한 사람이 도리어 화를 낸다는 뜻.

[40-42] 언어, “언간(諺簡)’의 국어학적 특징’

지문해설 : 이 글은 조선 시대에 쓰인 옛 한글 편지 ‘언간(諺簡)’의 국어학적 특징을 문체적, 구어적, 표기적 특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언간은 당시 자료인 언해(諺解)가 원문인 한문의 간섭을 많이 받음에 비해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우리말의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 언간은 특정 청자와의 대화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에 어느 자료보다 구어적 성격이 강하다. 셋째, 언간은 직접 손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재점’이나 생략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표기가 가능하다.

[주제] 언간(諺簡)의 국어학적 특징

40. 사실적 사고(핵심 내용의 이해)

정답해설 : 언해 자료는 번역의 속성상 원문인 한문의 간섭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우리말 어법에 필요 없는 단어가 더 들어가기도 하고 어순이 부자연스럽다. 하지만 언간은 원문의 간섭이나 제약이 애초부터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우리말의 모습을 보여 준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③ 1문단에 보면 언간은 그 내용에 있어서 개인적인 사연이나 감정을 드러낸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④ 3문단에 보면 언간은 특정 청자와의 대화 상황을 전제로 한 편지글이라 명시하고 있다. ⑤ 1문단에 지금까지 전해진 언간들 중, 사대부 간에 주고받은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41. 추론적 사고(구체적인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언간에서는 고유어는 물론 한자어에도 방언형이 등장한다. ‘말심’은 중

양어의 일반적 어형인 ‘말슴’의 방언형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말심’이라고 표기한 것은 아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16세기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자내’라는 호칭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보기>에는 자신보다 아랫사람에게 ‘자네’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16세기에 비해 오늘날에는 높임의 의미가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한테’는 조사 ‘에게’에 비해 구어적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향후여’의 축약형인 ‘향히’가 위 글에 인용된 언간에 쓰이고 있다. ⑤ 언간의 끝은 ‘이만 적습’, ‘여의치 못’ 등 종결어미를 생략하여 쓰기도 했다.

42. 추론적 사고(외적 증거에 따른 사례 찾기)

정답해설 : ‘총총’은 편지글을 쓸 때 끝맺음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글쓴이의 주관적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답] ①

[43-45] 사회, ‘조세전가의 이해’

지문해설 : 이 글은 납부자의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인 ‘조세전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세전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이를 토대로 조세전가의 개념과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조세전가’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어느 한 방향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서 발생할 수 있다. 또 양측의 실제 부담 비중은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이런 조세전가 현상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정부는 누가 진정한 조세 부담자인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제] 조세전가의 개념과 여러 양상

43.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의 추리)

정답해설 : 이 글에 소개되고 있는 조세전가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는 문제이다. 조세전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네 번째 문단에서 양측의 실제 부담 비중에 대해 궁급증을 내보이면서,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그 비중이 달라진다고 언급한 부분이 나온다. 이런 사실은 조세전가의 핵심 사항에 해당하며 곧 ①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조세전가의 혜택은 소비자가 누릴 수도 있고 생산자가 누릴 수도 있다. ③ 조세전가란 정해진 조세액 중의 일부가 타인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④ 생산자에게 조세가 부담될 경우 생산자의 조세 중 일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⑤ 조세전가가 일어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에 따라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다.

44. 추론적 사고(자료의 활용 및 적용)

정답해설 : A는 정부가 조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했을 때의 경우를 사례로 들어 조세 전가를 설명한 것이다. 물품세가 부과된 생산자는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상품 가격을 올리고자 할 것이고,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와 갈등을 초래한다. 이런 갈등은 결국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양측의 힘이 균형을 이루며 새로운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생산자에게만 부과되었던 물품세가 어느 정도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그런데 100원이었던 조세를 50원으로 줄인다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다소 낮춘다는 것이지, 조세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S_1 은 왼쪽 위로 올라가되, S_2 보다는 낮은 곳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생산자와 소비자는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P를 형성하게 되고 소비자는 P를 가격으로 지불한다. ② 생산자는 부과된 세금 100원을 모두 납부한다. 단지 가격 상승이 있으므로 세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는 것이다. ④ 소비자의 세금 부담액은 원래 상품의 가격 1500원에서 초과된 금액이므로, P에서 1500원을 뺀 것이다. ⑤ 조세를 부과하면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므로 상품 판매는 줄어들게 된다. 시장 가격의 형성된 부분의 가로 좌표가 판매량에 해당한다.

45.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의 적절성)

정답해설 :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소비량을 줄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느 측에 세금을 부과해도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또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유행이 바뀌어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 액세서리 생산자는 이미 생산된 물건을 팔아야 하는 사람이므로 제시한 상품 수를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곧 생산량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⑤는 ㉠의 예로 적절하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바나나 가격 변동에 따라 소비자가 소비를 조절하는 경우이다. ② 커피 가격의 변동에 따라 커피의 소비를 조절하는 경우이다. ③ 언제나 더 싼 제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다. ④ 저장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 사과와 출시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이다.

[46-50] 갈래 복합

(가) 정약용, '고시'

작품해설 : 이 시는 제비의 말을 통해 당대의 지배 계층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다. 화자는 제비의 말을 있는 그대로 인용만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하고 있지 않는 듯하지만, 이미 제비의 말에서 제비가 겪는 고통을 읽어낸다는 것은

핍박받는 백성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제비는 바로 착취당하는 서민층을 의미하며, 황새와 뱀은 이들을 수탈하고 괴롭히는 지배 계층을 의미한다.

[주제] 지배자의 횡포와 피지배층의 고통

(나) 박인로, '누항사'

작품해설 이 작품은 지은이가 51세 때 관직을 그만두고 시골에서 생활하던 중 두메 살림의 어려운 형편을 묻는 한음 이덕형에게 대답한 것이라 한다. 조선 전기의 양반가사와는 달리 곤궁한 생활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비록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난을 원망하지 않고 도(道)를 즐기는 장부의 뜻은 변함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빈이 무원(貧而無怨)하는 선비들의 고절(高節)한 삶

(다) 이학규, '어떤 사람에게'

작품해설 : 이 글은 글쓴이가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친구에게 여행 중 바라본 물가의 마을에서 말년에 살고 싶다는 뜻을 밝힌다. 이에 대해 친구는 그곳에서 실제 자신이 겪었던 생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과 실제 맞이하게 되는 현실은 다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며, 친구의 말을 들은 글쓴이는 깨달음을 얻는다.

[주제] 먼 곳과 가까운 곳의 차이에 대한 깨달음

46.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한 제비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당대의 백성들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기에 느릅나무 구멍을 쪼는 황새와 해나무 구멍을 뚫지는 뱀은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못된 관리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나)에서의 화자는 소를 빌릴 수 없으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연을 벗삼아 안빈낙도(安貧樂道)의 뜻을 지키겠노라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다)에서 '나'가 훗날 살고자 하는 물가의 마을에 대해 친구인 '포원자'는 그곳에서 겪는 삶의 어려운 점들을 생생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나를 만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 작품 모두 불만족스러운 삶의 현실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현실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담고 있는 작품은 보이지 않는다. ⑤ (나)에서 안빈낙도의 삶의 자세를 잊어버렸던 지난날에 대한 반성이 나타나 있다.

47. 추론적 사고(작품의 비교 감상)

정답해설 : (나)에서 화자가 처한 공간은 소박한 시골이다. 이곳에서 화자는 농사를 짓고자 하나 그마저도 소를 빌릴 수 없어 쉽게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생활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강호에서의 꿈을 되새기며 안빈낙도의 의지를 다

지고 있다. 그러므로 공간의 이동 경로는 찾아 볼 수 없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제비’와 제비를 못살게 구는 ‘황새, 뱀’은 대비적 관계에 있다. ③ (가)에서 ‘황새, 뱀’은 화자에 의해 풍자되고 있다. ④ 설의적 표현이란 물음의 형식을 통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는 것이다. (나)의 ‘~취할 뜻을 갖을쏘냐’, ‘~알 이 있어 사러오랴’에서 설의적 표현을 엿볼 수 있다. ⑤ (가)에서는 제비의 하소연하는 듯한 말을 그대로 읊기면서 화자의 비판적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자신의 힘겨운 삶에서 느끼는 내면을 직접 드러내고 있으며, 잠시 잊었던 안빈낙도의 의지를 다지는 부분에서도 화자의 내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48.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는 제비의 지지배배하는 소리이다. 화자는 이러한 제비의 소리에서 힘 없는 백성들이 삶에서 느끼는 고통을 읽어내고 있다. 결국 제비의 소리는 화자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의 말은 친구인 포원자가 글쓴이인 ‘나’에게 한 말이다. ‘나’는 관동지방 유람을 하다가 바라본 물가의 마을에 대해 훗날 노년을 보내고 싶다고 친구에게 말했다. 이에 대해 친구 포원자는 멀리서 바라본 마을의 모습이 아닌 실제 그 마을에 대한 경험을 언급하고 있다. 친구는 ‘나’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어려움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다. 결국 친구의 말은 ‘나’의 인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답] ②

49. 비판적 사고(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의 감상)

정답해설 : <보기>는 (나)의 작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작품의 감상을 심화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삶에서의 어려움을 느끼며 힘겨워하다가 강호의 꿈을 환기하며 안빈낙도의 삶을 살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에서의 ‘홀륭한 군자’는 바로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며, 화자가 빌리고자 하는 낚싯대 역시 자연을 벗삼아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그러므로 권력욕에 빠진 위정자에 대한 비판을 보여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④

50. 비판적 사고(작품의 관점 파악)

정답해설 : <보기>는 도시의 삶에서 지친 사람이 시골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같은 소망을 드러낸 사람은 (다)에서의 ‘나’이다. 둘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그곳에서의 이상적인 삶을 소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다)에서 ‘나’의 친구가 지적했듯이 실제의 삶이란 멀리서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친구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 (다)의 글쓴이가 받아들이고 있기에 이러한 관점에서 충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겠느냐는 충고를 해야 할 것이다. [답] ①